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항상 마음을 중도에다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공부해 나가세요

부처님 법을 부처님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해서 가르치신 그 뜻은 너무나 크고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행동과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만약에 기복으로 한데로 떨어뜨린다면 그 묘한 이치와 무한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에 세계적으로 퍼지고 퍼져서 또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또 퍼지고 하는 이 이치,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 하고 반복되는 진리지마는 이 속에는 여러분이 겪어 보지 않고 실감해 보지 못한 뜻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많은 법과 더불어 무서운 도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알면 너무나 좋고 자비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홀로이 우뚝 선 뜻이지마는, 모른다 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치 속에서 여러분은 구르고 아픔을 받아야 하고 피를 삼켜야 하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주적으로도 그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임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공부를 해서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바로 네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하는 건 '이 도리를 모르면' 하는 소리로서, 자기 각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없다면 빈집이나 한가지가 돼서 누구를 막론해 놓고 들락날락해도 그건 빈집이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비유한다면 세포를 뚫고 어느 고장에 문이 없이 들락날락, 눈으로도 귀로도 이 세포로도 천만 가지의 문이 그렇게 많은 대로 갖가지 형상을 하고 갖가지 모습을 가지고 갖가지의 행을, 악조건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내 집을 마음대로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디서 오는지, 뺏기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항상 끄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무체의 신은 선신이라고 하고 악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안에도 역시 사람으로 살던 악령이라든가 선령,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림 · 최주현

도리를 몰라서 주장자가 없고 바깥으로 기복으로만 찾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요것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깡패가 애들을 데려가면 깡패 짓을 가르치지만 선한 사람들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났으면 올바르게 이끌어 주고 선량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 형상 없는 악한 마음, 즉 악령은 악령대로 시시각각으로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서 '아, 이건 조상이 이러나 보다.' 이럭하게 만들고 '아, 이건 부처님이 이러신가 보다. 그럼 정성을 들여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해 주고, 헝겊 하나만 들여도 그 집안이 난리가 나게 만들고, 그 집안에 떡을 좀 해 먹어도 난리가 나게 만들고 일일이, 건건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서슴지 않고 사람의 혼백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그러한 악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악령들은 자기가 악령으로서 억겁을 돈다 하더라도 그 억겁을 악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하기 때문에 선령으로서, 인간으로서 몸을 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악행만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붙잡혀 들어가고 나쁘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고난과 피해를 갖가지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서 선하게 선신으로서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악한 사람 마음도 녹여서 선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요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 드렸지마는 이것이 우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 지금 사회, 이 한 가정 이런 데로 보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각각 보풀려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일가친척으로 돌아가고 또 내가 사회에 있으니 사회로 돌아가고 국가가 있으니 국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역시 이익지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나쁘게 하려면 열 개를 나쁘게 해야 하나가 나빠지듯이 별일이 다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악조건에 의한 세계적인 문제, 그건 우주적으로 오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서 인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악령체가, 체가 없는 그런 악령들이 모습 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이 아니라 '있는 것' 입니다. 여기도 반은 있고 반은 없으니까요. 또 반이 있는 데서 선과 악이 있고, 우리 지금 현재의 산 생명들이 있는 데서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데서도 악령으로서 체가 없이 인간의 모습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짐승으로만 악하게 살던,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서로 이렇게 하고 악다구니들처럼 살다가 죽은 그 영과 보이지 않는 영계, 또는 그 모습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가 그 모습이 무너지면 또 영계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모습이 없는 거, 모습이 있는 거 찰나찰나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생명들이 살고 있다면 악하게만 살던 짐승의 습은 우리들 인간이라는,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도의라는, 의리라는 이러한 것을 도무지 생각조차도 못 합니다.

그러하기에 부처가 되려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9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돼 보지 않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습이 없어도 왜 사람인가 하면 사람으로 살던 습이 바로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어도 영계를 보면 그 모습이 탁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 속에 살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찍혀 있는 것처럼 그렇기에 그러한 악조건의 악령들이, 짐승의 악령들이 어떠한 거든지 서슴지 않고 덤비는 그런 조건 위에서, 사람으로 살지 않던 짐승의 영계도, 인간의 영계를 봤을 때는 짐승의 영계는 무조건 그것을 착취한다는 얘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악조건으로 악하게 쓰니까 착취해서 무조건 갖다가 악으로 쓰이는 데에 응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또 다른 혹성에도 가서 생할 수 있고 여기 이 세상에도 생할 수 있고, 모습을 똑같이 해 가지고 나와도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건이 그리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법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들이고 내고 하는, 이 숨 쉬고 내쉬고 하는 이 우주의 근본이, 한 우주가 숨을 들이쉬면 쑥 들어갔다가 한 번 내쉬면 쑥 나왔다가,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형상 없는 영계의 그 모습 없는 행들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딴 혹성도 세계라고 하지요. 그 혹성 안에서는 거기를 세계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의적으로 따진다면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하죠. 그러니 그런 문제, 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 22면으로 계속

